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에 정운현 씨 임명

- 문화 정보화 현장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문화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6월 11일(화)자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에 정운현(1959년생)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11일부터 2027년 6월 10일까지 3년이다.


정운현 신임 원장은 중앙일보사 조사부 기자를 시작으로 서울신문사 문화부 차장,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거쳐 일선에서 다년간 문화 정보화 현장을 연구하고 취재해 왔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상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지내면서 공직자로서 풍부한 행정 경험까지 겸비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 정보화 전담 기관이자 디지털 혁신 전문기관으로서 문체부의 문화 디지털혁신 비전인 ‘새로운 가치와 경험이 있는 디지털 문화 일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데이터 개방·활용, 문화·체육·관광 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 인공지능 선도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문화정보원은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지원하고 외부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신임 원장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해 한국문화정보원이 정부 혁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임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주요 약력

담당 부서	정보화담당관	책임자	과장	백정기 (044-203-2261)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강정미 (044-203-2271)

	성 명	정운현(鄭雲鉉)
	출 생	1959년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00)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 학사('85)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18~'20) ▪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상임)('08) ▪ 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05~'07) ▪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02~'05) ▪ 전 서울신문사 문화부 차장('98~'02) ▪ 전 중앙일보사 조사부 기자('84~'98) 	